

지훈에 대하여

지훈의 아버지는 혼자 지훈과 윤빈을 키운다. 작가일을 하는 지훈부는 집에서만 일과를 보내기 때문에 보통 세 끼를 모두 두 아이와 함께 챙겨 먹는다. 부지런하고 다정한 그의 얼굴에는 평상시 원고를 작성할 때도 짙은 수염자국 위에 항상 열린 미소가 습관처럼 묻어 있다. 그는 가끔 지훈과 윤빈이 다들 때 두 아이를 꼭 양쪽 옆구리에 품은 채로 꾸짖는다. 지훈부의 일관적인 애정 아래서 자라온 두 남매는 애정을 표현하고 요구하는 일에 겁이 없다.

초등학교 고학년이 된 지훈은 오빠만 목이 빠져라 기다리는 집순이 여동생이 성가실 때가 많다. 하지만 가끔 아빠가 없을 때 계란프라이를 부쳐 케첩을 조금 뿌리고 조미료 '밥이랑'을 얹어 김에 싸 먹는 특별 요리, 이른바 '지훈성찬'을 선보일 때마다 방방 뛰며 기뻐하는 여동생의 모습을 여전히 좋아하기에 지훈은 기꺼이 의젓한 오빠가 된다. 다만 새로 사귄 친구 민형을 집에 데려오던 날, 윤빈이 '지훈성찬'을 해달라 조르는 바람에 덜컥 창피를 샀던 지훈은 그 메뉴이름을 금기어로 지정하고 말았다.

윤빈은 오빠가 데려오는 친구들에게 호기심이 많아 늘 같이 놀자고 조른다. 그런 윤빈이 부담스러울까 염려한 지훈은 민형이 집에 놀러 올 때마다 종종 윤빈을 엄하게 떼어놓는다. 제대로 토라진 윤빈이 지훈부에게 이 사실을 알려바치는 바람에 지훈은 어쩔 수 없이 '지훈성찬'을 회유책으로 부활시킨다. 어느 여름, 부쩍 지훈부의 외출이 많아지자 민형과 저녁까지 놀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없었던 지훈은 민형과 함께 셋이 '지훈성찬'을 먹는 대신으로 민형과 나가서 노는 것을 따라 나서지 않기로 윤빈에게 단단히 약속 받는다. 이후 민형과 집 밖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 꿈 같기만 했던 지훈은 자신의 방식대로 편지를 쓰고 요리도 해주며 애정을 표현하지만 늘 모자람을 느낀다.

민형에 대하여

민형부는 집에 있는 시간이 별로 없다. 주부인 민형모는 민형부의 강압적인 성향으로 인해 삶에 대한 회의를 겪고 있으므로 집에 있더라도 늘 아무도 없는 듯 조용하다. 방 안에 놓인 컴퓨터만이 세상의 전부인 초등생 민형은 같은 반 친구들의 싸이월드 홈페이지를 찾아가 사진들을 구경하고, 가끔 그들과 친해져 자신도 함께 그들의 셀카속에 들어가 있는 상상도 해본다. 그러나 민형은 저녁에 민형부가 돌아와 소파에 앉아있으면 아무리 소변이 급해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때까지 방에서 기다렸다가 한 번씩 다녀올 정도로 아주 소극적이고 눈치를 살피는 아이다. 평소 소변이 자주 마려운 민형은 이를 들키면 원치 않는 민형부의 관심을 끌게 되는 것이 싫어서 저녁마다 홀로 고군분투를 한다.

그러던 민형이 처음 사귀게 된 친구 지훈은 아주 각별한 사이라고 할 수 있는데, 현장 학습 대형 버스에서 자신의 옆자리로 지훈이가 배정되던 날, 민형은 상상 속으로 몇 번씩 시뮬레이션 했던 아주 자연스러운 대화를 이어가는 데에 성공, 현재까지도 스스로 생각하는 자신의 모습으로 곁에 있을 수 있는 유일한 친구이기 때문이다. 민형은 집에 컴퓨터가 없는 지훈의 흥미를 배려하기 위해 기꺼이 컴퓨터 게임을 뒤로하고 단지 앞 잔디에서 방아깨비를 잡거나 놀이터 흙으로 두꺼비집을 짓고 노는 것 등에 거리낌 없이 동참을 했으며, 지훈의 여동생인 윤빈에게도 위화감을 주지 않으려 늘 신경을 썼다. 덕분에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함께 있는 것이 당연한 단짝 친구가 되기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았다. 놀거리가 떨어져 그저 뒹구는 날도 많았지만, 매일 반 구석 자리에서 소외감을 견뎌야 하는 인고의 시간 뒤에 찾아오는 방과 후 지훈과의 편안한 일상은 민형에게 유일한 안식처였다.

그러나 마음과는 다르게 반복되는 일상의 싫증은 찾아오기 마련이었고, 서로의 지루함을 감지한 민형과 지훈은 새로운 놀거리를 모색하다 지훈부의 방 구석에 놓인 낡은 기타 하나를 몰래 가지고 놀기 시작한다. 그 장면을 지훈부에게 들켜버렸을 적에는 둘 다 가슴이 철렁 내려 앉는 줄 알았으나, 지훈부는 둘을 앉혀 놓고 차분하게 코드 잡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부드러운 기타 소리에 깊게 반해버린 민형은 다시 방과 후 지훈의 집이 기다려졌다. 지훈부가 알려준 코드 네 개(G,Em,C,D7)중 세 개를 그럴듯한 소리로 낼 수 있게 되었을 즈음, 민형과 지훈은 흥미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린다. 기타 소리를 야외 아지트에서 들어보자! 둘은 합심해서 지훈부에게 기타를 가지고 나가도 되냐며 조르기 시작한다.

안녕, 나의 산타 (Hello, My Santa)

(MV, 드라마 타이즈, 6~8 min)

멀티미디어영상과 졸업작품

2016135013 안수찬

시놉시스

대학생 민형은 당근마켓에서 우연히 어릴 적 단짝친구 지훈과 가지고 놀던 낡은 기타가 매물로 올라온 것을 발견한다. 민형이 그 게시글을 보고 깜짝 놀란 이유는 어릴 적 그 기타를 버린 것이 바로 자신이기 때문이다. 성인이 된 후에도 계속 후회했던 행동을 만회하고자 민형은 바로 판매자와 연락하고 거래 현장으로 출발한다. 혹시나 판매자가 지훈은 아닐까, 만약 지훈이라면 무슨 말부터 꺼내야 할까. 머리가 복잡해진 민형은 당시 지훈과 있었던 일을 천천히 회상한다.

S#1. 현재. 상봉역 플랫폼. 정오.

개방형 지하철역 플랫폼에서 지하철을 기다리는 민형(20). 약간 긴장한 듯한 모습으로 핸드폰을 확인한다. 핸드폰에는 낡은 기타 사진이 판매 글과 함께 올라와 있다.

“사정이 있어서 판매합니다.”

판매가 : 20,000 원

S#2. 과거. 아지트. 오후.

(사운드 선행) 아이들이 실랑이를 벌이는 소리. 아파트 옆에 불록 솟은 형태의 지하 배관실 입구 뒷 편에서 낡은 기타를 감싼 지훈(10)과 민형(10)의 작은 팔이 힘껏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 결국 기타를 뺏어드는 민형. 상기된 얼굴. 씩씩 숨을 고르는 민형 옆으로 지훈이 휙 지나쳐 가 버린다. 그대로 정면을 본 채 울분을 삼키는 민형의 얼굴.

BLACK OUT.

<안녕, 나의 산타 (Hi, My Santa)> 타이틀 인.

S#3. 과거. 지훈의 집. 오후.

지훈(10) (V.O)

아빠! 밖에서 한 번만 쳐 볼게요. 진짜 한 번만요!

지훈의 집. 지훈부 앞에 나란히 서서 침을 꿀꺽 삼키는 중인 어린 지훈과 민형. 지훈부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다. 기타 가방을 맨 지훈.

지훈부 (V.O)

(나긋한 말투) 사람들 시끄러워서 안돼.

지훈(10)

진짜 조용히 칠게요. 정말 소리만 들어 볼 거예요!

지훈부 (V.O)

지훈. 아빠 뭐라 그랬지? 다른 동네 갈 때는 꼭 아빠 같이 가야 된다고 했지? 너네끼리 위험해. 대신에 요 앞에서 치던지, 아니면 안돼.

지훈(10)

아, 아빠... 어차피 거기도 학교 근처데.

민형(10)

거긴 사람들 별로 안 다녀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도 돌봐주시기로 했어요!

지훈(10)

(민형과 눈짓을 한 번 주고받는다) 맞아요!

지훈부 (V.O)

민형이 부모님이 봐주신다고?

지훈, 민형(10)

네!

지훈부

진짜야?

지훈이 민형을 슬쩍 쳐다본다. 민형은 침을 꿀꺽 삼킨다.

민형(10)

...네!(결연)

지훈부

(열은 한숨과 함께 못 이기겠다는 표정) 지훈. 해지기 전에 들어올거야?

지훈(10)

(눈을 반짝이며) 네!

지훈부 (V.O)

정말 믿어도 되?

지훈(10)

네!!!

지훈부 (V.O)

...오케이.

지훈부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잔뜩 신이 나서 문을 나서는 지훈과 민형. 그때 방에서 뛰쳐나와 자기도 데려가라며 칭얼거리는 윤빈. 지훈은 “넌 기타 안 치잖아, 집에 있어” 하며 문을 닫는다. 문 앞에서 떼를 쓰는 윤빈을 들어 안고 “윤빈이는 아빠랑 놀자~” 하며 달래는 지훈부.

MUSIC IN.

전주

S#4. 과거. 도농역 앞. 오후.

둘은 도농역 출구에서 나와 그들의 아지트를 향해 신나게 뛰어간다.

선물을 기다리던 어느 겨울엔

S#5. 과거. 아지트. 오후.

둘의 아지트인 아파트 지하 배관실 입구 구조물에 도착. 지훈이 코드를 잡고 연주하는 소리에 민형도 집중한다. 밖에서 들으니 갑자기 작아진 기타소리가 신기한 듯 놀란 눈으로 서로를 쳐다보는 지훈과 민형의 얼굴. 다시 아래를 보면 코드를 잡고 다시 줄을 튕겨보는 지훈의 손.

작은 손 아린 줄도 모르고 헤쭈대던 코흘리개

S#5-1. 과거. 아지트. 오후.

맨발로 아지트 구조물 위에 올라가려는 지훈. 먼저 올라가 있는 민형에게 기타를 건넨다. 아파트 외벽의 굴곡을 잡고 클라이밍 하듯 올라오는 지훈. 아지트에 올라온 둘은 풍경에 감탄한다.

이제 실없이 웃는게 참 어려워졌네 버릇처럼

S#5-2. 과거. 아지트. 오후.

구조물 위에 엮드린 채 고개를 빼꼼 들어가며 멀찍이 보이는 경비원의 동태를 살피는 둘. 가위 바위보를 하더니 한 명씩 몸을 일으켜 경비원에게 손을 흔든다. 킁킁대더니 아예 자리에서 일어서서 손을 흔드는 지훈. 다시 쓴살같이 숨는다.

맘을 아끼는 어른에겐 찬 공기만 스쳐가지요

S#5-3. 과거. 아지트. 오후.

지훈의 반주에 맞춰 노래를 불러보는 민형. 경비원이 소리를 듣고 다가오자 후다닥 기타를 들고 도망간다.

간주

S#6. 과거. 지훈의 집. 오후.

지훈의 집 현관문을 살짝 여는 지훈과 민형. 맞은 편 방에 잠든 윤빈을 확인하고는 집안 구석 구석에서 돛자리, 배게, 캠핑용 램프, 캐리어 등을 챙겨서 신나게 문을 나선다.

S#7. 과거. 민형의 집(아파트). 오후.

민형의 집 거실 냉장고에 지훈이 민형에게 써준 편지가 자석으로 붙어 있다. 냉장고 문을 닫는 민형의 왼팔에는 음료수 하나가 안겨 있다. 지훈과 함께 조용히 현관으로 나오는 민형.

S#8. 과거. 민형의 아파트 공동현관. 오후.

아지트 바로 옆의 민형 아파트 공동현관에서 민형과 지훈이 달려나와 아지트로 간다.

시린 손은 내 주머니에 넣고 나는 질린 노래나 다시 들죠

S#9. 과거. 아지트. 오후.

캐리어를 열고 돛자리, 의자, 만화책, 캠핑용 램프 등을 신나게 꺼낸다.

사람들 춤추고 노는 캐롤 노래 나도 다시 듣고 싶어질까요

S#9-1. 과거. 아지트. 오후.

잔뜩 벌려 놓은 돛자리 위에서 지훈이 기타를 연주하고 민형이 노래를 부르며 방방 댕다.

이제와서 아이처럼 해맑게 웃어봐도 내겐 별로 안 어울리는데

S#9-2. 과거. 아지트. 오후.

구조물 위에서 코드를 잡아보는 민형의 손을 도와 잡는 지훈. 민형은 아무리 해도 소리가 이상하자 못하겠다는 듯 드러누워 버린다. 그런 민형을 보고 뭔가를 생각하는 지훈.

행복한 척, 이런 내 마음 산타만큼이나 빨간 거짓말

S#9-3. 과거. 아지트. 오후.

지훈이 코드를 잡고 손바닥으로 줄을 두드리자 어엿한 기타소리가 난다. 신기한 지 흥분하는 듯. 얼마 후 아예 기타를 눕혀놓고 나뭇가지를 가져와 북처럼 두들기며 신나게리듬을 탄다. 기타 줄 밑으로 나뭇가지에 굽힌 자국이 남는다.

간주

S#10. 현재. 지하철 안. 오후.

지하철에 앉아 있는 민형(20). 게시글의 기타 사진 속 기타줄 밑의 굽힌 자국들을 확대해 보더니 피식 웃는 민형. 그러다 뭔가를 발견하고 미소가 멎는다. 핸드폰의 확대한 사진을 구석으로 이동하니, 조그맣게 아지트의 모습이 보인다.

MUSIC CUTOUT.

S#11. 현재. 도농역 플랫폼. 오후

MUSIC CUTOUT. 지하철이 역에 도착하는 소리. 개방형 지하철역인 도농역에서 내리는 민형(20). 조금 걸어가다가 판매자인 지훈(20)을 발견한다. 역내 벤치에 앉아서 구매자를 기다리던 지훈은 민형을 발견하고 일어나 인사하려다가 뻘히 자신을 쳐다보는 민형이 의아한 듯 멈춘다.

S#11-1. 현재. 도농역 플랫폼. 오후

벤치에 나란히 앉아있는 성인 지훈과 민형. 지훈은 기타를 가방에서 꺼내고 있다.

지훈(20)

(기타를 건넨다)

어떻게 이렇게 만나냐!

(잠시 할말을 찾는다)

요새 기타 쳐?

민형(20)

아. 응! 기타 좀 쳐볼까 해서.

지훈(20)

와 진짜? 나도 중학교 때까지 엄청 가지고 놀았는데.

(기타를 보며)

근데 이건 너무 작지 않아? 난 이거 상처도 많고 그래서 누가 사주긴 할까 싶었는데.

민형(20)

(지훈을 보며 웃는다) 그니까 이거, (손으로 시늉하며) 우리 그때 나뭇가지로 두들기고 그랬잖아.

지훈(20)

(잘 기억 안나는 눈치) 아 그랬나? 와 그게 언제적이나. 추억이다 추억.

민형(20)

(붓통을 보며)

..이거는 붓 통인가? 미술 학원 다녀?

지훈(20)

응 이 근처에. 재수생이라서. (머쓱한지 너스레를 떠다)

야. 색연필을 사오라는데, 한 세트가 얼마지 알아? 십 만원이 넘는다? 진짜 예체능은 할 게 못 되
나 봐. 재료비 낸다고 이것저것 다 팔았더니 지금 내 방 완전 텅텅 비었어!

민형(20)

(따라 웃다가) 누가 채가기 전에 내가 잘 건졌네!

(기타를 보며)

다행이다. 난 이거 완전 잃어버린 줄 알았거든.

지훈(20)

(민형을 본다) 응? 이거?

(의아해하며)

잃어버린 적 있었나?

민형은 지훈을 본다. 지훈의 표정은 정말 의아한 눈치다. 민형은 다시 말 없이 기타의 줄감개 부
분을 본다. 줄감개 6개 중 하나가 다른 색깔로 달려 있다.

S#12. 과거. 아지트. 해질녘

(사운드 선행) 기타가 쿵 부딪히는 소리. 아지트 구조물 외벽에 부딪힌 기타가 바닥에 떨어져 진동하고 있다. 줄감개 하나가 충격으로 부러졌다. 씩씩거리며 기타를 보는 민형의 얼굴.

MUSIC IN.

드높게 다듬어가며 올리던 눈사람

S#13. 과거. 민형의 반 교실. 오후

종례중인 민형네 반. 엎드린 채 공책에 줄 다섯 개를 그어놓고 동그라미로 코드를 표시하는 민형. 앞을 보자 선생님이 칠판에 역할 분담을 적고 있다. '음악부장' 옆의 공란에 분필을 탁 치며 할 사람 손들라는 듯 손을 올리는 선생님. 앞자리 앉은 아이들이 두리번거리다 민형 쪽으로 고개를 돌리자 민형은 낙서하던 공책을 교과서 밑으로 숨긴다.

나에게 인사하던 표정이 더 이상은 떠오르지 않네

S#13-1. 과거. 민형의 반 교실. 오후

종례가 끝나고 삼삼오오 모여 같이 반을 나가는 아이들. 맨 뒷자리에 앉은 민형은 이따금씩 아이들을 힐끔훑쳐보며 천천히 책들을 가방에 넣다가 교실 뒷문에 기타를 맨 지훈이 온 것을 보고 나서야 일어난다.

또 변함없이 다시 오는 봄비는 계절 어김없이

S#14. 과거. 민형의 방. 오후

민형의 방. 책상에 기타를 기대 놓고 컴퓨터를 하는 민형. 화면에는 반 친구들의 싸이월드 사진첩. 일촌 목록을 보면 대부분 일촌명 '(금교초) - (금교초)' 로 등록되어 있다. 그 중 유일하게 다른 일촌명 '주민형(민형) - 민지훈(지훈)'이 보인다. 지훈의 미니홈피로 들어가자 아무 게시글이 없고

기본 미니미가 서 있다. 민형의 등 뒤에는 지훈이 침대에 누워 만화책을 보고 있지만 말 수가 없어진 민형이 신경쓰여 집중하지 못한다. 민형의 뒷모습을 흘깃 본다. 민형의 옆에 기대어 있는 기타.

쌍인 눈앞에 내 발걸음 무심하게 나를 옮기네

S#15. 과거. 아지트. 늦오후

아지트 구조물 밑에 기타를 기대어 놓고 옆에 기대어 기타줄을 만지작거리는 민형. 지훈은 그 모습을 구조물 위에서 엿드린 채 지켜본다. 구석의 나무에 캐리어가 자전거 자물쇠로 걸려있다.

간주

S#16. 과거. 민형의 아파트 공동현관. 해질녘.

기타를 맨 채 공동현관 앞에서 민형과 마주 서있는 지훈. 민형의 달라진 분위기에 근심하는 지훈의 얼굴. 애써 웃으며 손을 흔들며 본다. 민형은 무표정하게 인사하고는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누른다. 주눅 든 채로 발걸음을 돌리는 지훈.

MUSIC CUTOUT.

S#17. 과거. 버스 안. 오후

버스 창가 자리에 앉아 옆자리에 기타를 놓는 지훈. 푸속 한숨을 쉰다. 그러더니 책가방에서 주섬주섬 공책과 연필을 꺼내 창가에 대고 먼저 적혀있던 편지를 이어서 쓴다.

‘민형아 안녕? 우리가 1학년 때부터 친구였으니까 벌써 친구가 된지 2년이 훌쩍 넘어갔어. 저번 네 생일은 내크리스마스중에 제일 행복했어. 너가 내 친구인게 참 고마워. 그때 선물을 해주고 싶었는데 아빠가 용돈을 미루어서 못해줘서 미안해. 그래도 기쁜 소식이 있는데 너한테 기타를 선물로 줘도 된다고 아빠한테... ’

편지를 쓰던 중 버스 창 밖으로 무언가를 발견한 지훈. 현 책방 안에서 사장님이 기타를 치고 있는 모습이 스쳐 지나간다. 편지를 쓰다가 멈추고 고개를 앞으로 돌려 생각에 잠긴 지훈. 무언가 떠오른 듯 하다.

MUSIC IN.

시린 손은 내 주머니에 넣고 나는 질린 노래나 다시 들죠

S#18. 과거. 민형의 반 교실. 오후.

다음날 학교. 종례가 끝나자마자 민형의 반으로 달려가는 지훈. 뒷문으로 나오는 민형과 마주친다. 민형에게 기타를 건네며 무언가 당부하는 듯한 모습. (먼저 아지트에 가 있으라는 내용) 그러고는 신난듯한 발걸음으로 먼저 뛰어가는 지훈.

사람들 춤추고 노는 캐롤 노래 나도 다시 듣고 싶어질까요

S#19. 과거. 헌책방 가는 길. 오후.

공원과 지하철 역을 가로질러 전날 버스에서 봤던 헌 책방을 향해 달려간다. 헌 책방에 도착해 들어가는 지훈의 모습.

이제와서 아이처럼 해맑게 웃어봐도 내겐 별로 안 어울리는데

S#20. 과거. 헌책방. 오후.

지훈이 사장님에게 무언가를 묻자 한쪽 책장을 가리키는 사장님. 책장에는 기타연주 관련 교재들이 꽂혀있다. 하나를 골라 카운터로 가는 지훈.

행복한 척, 이런 내 마음 산타만큼이나 빨간 거짓말

S#21. 과거. 헌책방 앞. 오후.

책방에서 나와 민형에게 달려가는 지훈. 뛰다가 가방 앞주머니에서 써두었던 편지봉투도 꺼내 책과 겹쳐 든다. 기대가 가득한 표정.

MUSIC CUTOUT.

S#22. 과거. 아지트 옆길. 오후

아지트에서 기타를 튕기며 지훈을 기다리는 민형. 아지트 옆길로 같은 반 아이들이 지나가다가 민형을 발견하고 관심을 기울인다.

친구1(여)

어? 재 주민형 아니야?

친구2(남)

어 진짜 맞는데? 저기서 뭐해?

친구3,4(남,여)

우와 기타다. 우와!

S#22-1. 과거. 아지트. 오후

앉아있는 민형에게 같은 반 아이들이 다가온다.

친구1(여)

(곁에 쫓그려 앉으며)

야 주민형~ 혼자 뭐해? 여기서 기타쳐?

친구4(여)

너 기타칠 줄 알아? 야 대박. 연주해봐!

민형(10)

(부끄러워 하며)

아.. 나도 잘 못치는데

친구2(남)

(옆에 털썩 앉으며)

아까 기타소리 들렸는데. 한 번만 다시 해 봐. 빨리! 한 번만 보여줘.

친구4(여)

(따라 앉는다)

와 나도 들을래!

민형(10)

이거 그냥..

(G코드를 친다)

친구1,2,3,4

우와!!!!

민형(10)

그리고

(C코드를 친다)

이거

친구1,2,3,4

우와 대박!!

흥분한 눈빛의 아이들 사이에서 민형은 부끄럽지만 내심 관심받는 것이 아주 기쁘다. 아이들은 눈빛을 반짝이며 민형에게 더 다가간다.

친구2(남)

민형. 너 언제부터 쳤어? 기타 어려워?

민형(10)

친지 좀 됐는데. 근데 이거는 금방 칠 수 있어.

친구2(남)

진짜? 야 나 한 번만 쳐봐도 돼?

(민형이 끄덕인다. 기타를 받아드는 친구2)

어떻게 하는거야?

민형(10)

처음에 손가락이 좀 아프긴 한대..

(손가락으로 어디 어디를 짚어야 하는지 알려 준다)

친구2가 민형이 알려준대로 코드를 짚고 기타줄을 굵자 둔탁하게 먹는 소리가 난다. 민형이 조금 더 세게 눌러면 된다고 알려주지만 친구2는 손가락이 아프다며 금방 포기한다. 친구3이 기타를 넘겨받는다. 시늬를 잠깐 하더니 이걸 절대 못하는 거라며 민형이 강철 손이라며 호들갑을 떠난다. 킁킁대는 아이들 사이에서 민형은 머쓱하지만 환하게 웃는다.

친구1(여)

야 배고파. 이제 가자.

친구4(여)

(일어나며) 그래. 야 주민형~ 우리 함께.

친구2(남)

(돌아서며) 아 좀 만 더하면 소리 날 거 같은데, 까비.

친구3(남)

(일어나며) 민형 너도 갈래? 너 이제 뭐해?

일제히 민형을 보는 아이들. 민형은 아이들을 올려다 보며 조금해진다.

민형(10)

너네 어디 가는데?

친구4(여)

우리 김천! 너도 갈래?

민형(10)

.. 그래!

(자리에서 일어난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아이들과 아지트를 나서려는 민형. 김밥천국을 갔다가 누구네 집으로 가자, 이런 이야기를 하며 민형에게도 갈거냐고 묻자 민형은 너네집 어딘데? 하고 되묻는다. 그때 아지트에 거의 다 도착한 지훈이 이 대화를 들으며 걸어 오다가 민형을 딱 마주친다.

지훈(10)

(눈을 동그랗게 뜨며)

야 너 어디가?

민형(10)

(당황하며) 아 나 잠깐 애들이랑 밥먹고 올려고...

심상치 않은 분위기에 민형 반 아이들이 수군댄다. 지훈을 보며 우리학교 앤가? 하는 소리.

지훈(10)

그럼 나는? 나는 누구랑 먹어?

민형(10)

... 아니 니가 나랑 같이 먹자고 약속한 건 아니잖아. (지훈의 표정이 심상치 않자 다급하게) 너가 기다리래서 기다리다가 늦게오길래 그냥 잠깐 먹고 올라 한 거지.

말문이 막힌 지훈. 옆에서 친구4가 '뭐야 애네 사랑싸움하나봐' 하며 수군대자 나머지 아이들이 일제히 키득거린다. 궁색해 보일 자신의 모습에 수치심을 느끼는 민형. 덜컥 심술이 나서 지훈에게 버럭 말한다.

민형(10)

니도 늦게 왔으니까 기다려. 갔다 올 테니까.

(핵 지나쳐 성큼 걷는다)

지훈(10)

(병찐 채 서 있다가 몸을 핵 돌려 민형에게 기타를 거칠게 낚아챈다)

이건 두고 가.

(아지트 자리로 걸어가 털썩 쭈그러 앉는다. 가져온 기타교재와 편지지가 아무렇게나 팽겨쳐진다)

민형(10)

...

(지훈을 쳐다본다)

지훈(10)

(민형을 보고 버럭하며)

이건 가져갈 필요 없잖아. 어차피 다시 올 거잖아.

친구1(V.O)

애 밥먹고 우리집 가기로 했어~

민형(10)

(다급하게 고개를 돌리며) 그거 아직 대답 안했어!

지훈(10) (V.O)

(쭈그려 앉은 채 버럭 말을 끊는다)

애 나랑 놀기로 했어! 너네끼리 가!

병찐 민형. 옆에 아이들은 빈정이 상한 듯 말한다. 고개를 묻고 쭈그려 앉아있는 지훈.

친구2(V.O)

아, 야 그냥 지내끼리 놀라 그래. 배고파 죽겠다. 가자!

(돌아선다)

친구4(V.O)

재네 헤어지면 어떡해?

(따라 걸으며 키득댄다)

친구3(V.O)

(까불거리는 말투로)

아 부부싸움에 새우등 터졌다.

친구1(V.O)

(깔깔댄다)

아 미친. 새우등이래. 아 진짜 웃겨.

아이들이 떠나고 잠시 정적이 흐른다. 민형은 모욕감에 눈시울이 붉어진 채 가만히 서 있다가, 지훈에게 성큼성큼 걸어가 거칠게 기타를 뺏어 돌아선다. 지훈이 발끈하며 민형을 쫓아 일어나더니 다시 기타를 뺏으려 붙잡는다.

지훈(10)

(기타를 잡고 실랑이하며)

내놓으라고!

민형(10)

(뺏기지 않으려 실랑이한다)

아 씨. 집에 갈거라고! 내놔!

지훈(10)

(화를 내며)

내놔 니꺼 아니잖아!

확 기타를 뺏기고 덩그러니 서 있는 지훈. 눈두덩이가 붉어진다.

지훈(10)

...

(가만히 서 있더니 성큼성큼 민형 옆을 지나쳐간다)

민형(10)

(지나쳐가는 지훈에게 핵 고개 돌리고 버럭하며)

아 어찌라고. 아 뭐가 문젠대!

지훈은 뒤도 안 돌아보고 그대로 가버린다. 덩그러니 선 채로 손에 들린 애꿎은 기타를 보는 민형. 기타를 핵 바닥에 던진다. 기타는 떨어지며 구조물 외벽을 맞고 줄감개 하나가 깨진다. 진동음 속에서 민형은 기타를 버리고 핵 돌아서 가버린다.

S#23. 과거. 민형의 방. 오후

바닥으로 핵 팽개쳐지는 배게. 침대 구석에 쪼그려 앉아 생각에 잠긴 민형. 상기된 표정.

S#24. 현재. 도농역 플랫폼. 오후

민형(20) (V.O)

그때 없어져서 난 도둑맞았구나 했는데,

(지훈을 보며)

너한테 있어서 다행이야. 마음 쓰였었는데.

지훈(20)

(개의치 않게)

...난 또 무슨 얘기라고!

(민형을 보며)

초딩 때잖아. (밝게) 괜찮아~ 아 맞다!

(뭔가 생각난 듯 주섬주섬 주머니를 뒤진다)

까먹을 뻔했다. 야 이건 덤!

(피크 통을 건네며)

결제 어떻게 할 거야?

민형(20)

(예상과 다른 반응에 얼떨떨하며)

아. 현금 괜찮아?

(지갑에서 만원 두 장을 꺼내 건넨다)

지훈(20)

(돈을 받고 시계를 보며 일어난다)

고마워. 그럼 잘 쓰고! 나 이제 가볼게! 조심하 가!

(가볍게 웃으며 손 인사하고 돌아선다)

민형도 자리에서 일어나 떠나는 지훈에게 인사한다. 다시 자리에 앉고는 멍하니 생각에 잠긴다.

S#25. 과거. 민형의 방. 해질녘

째깍거리는 아날로그 시계 소리. 침대 구석에 쪼그려 앉아 손톱을 뜯는 민형(10).

S#26. 현재. 도농역 플랫폼. 오후

짜깁거리는 아날로그 시계 소리. 멍하니 앉아 있던 민형은 지훈이 간 방향으로 몸을 돌리며 벌떡 일어난다.

S#27. 과거. 민형의 아파트 공동현관. 해질녘

(액션매치) 아파트 공동 현관에서 뛰어나와 아지트로 달리는 민형(10)의 뒷모습. 아지트에 다다르자 민형은 무릎에 손을 짚고 잠시 숨을 고른다.

S#28. 현재. 도농역 출구 앞 거리. 해질녘

(액션매치) 뛰어나와 지훈의 손을 붙잡은 민형(20)의 손. 숨을 고르다가 고개를 드는 민형의 얼굴.

민형(20)

지훈아 내가, (숨을 고르며) 꼭 해야 하는 말을 빼먹었는데,

(침을 삼킨다)

그때도 꼭 했어야 하는 말인데, 그때 너무 너무 미안했어.

지훈(20)

(V.O) ... 에이. 그게 뭐 이 정도로 미안할 일이야?

(민형을 빤히 쳐다보는 지훈 얼굴.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

그냥 어렸을 때잖아. 사실 나 잘 기억도 안나.

(민형의 손을 내리고 어깨를 가볍게 다독이며)

미안 나 학원 많이 늦어가지고, 가 볼게! 아무튼 오늘 반가웠다 야.

(뒤돌아 상가로 향한다)

길거리에 덩그러니 서 있는 민형. 많이 진정된 들숨 날숨이 점점 사그라든다. 멍하니 서 있다가 한 손에 든 기타를 내려다보는 민형.

S#29. 과거. 아지트 근처. 저녁(Day For Night)

던져진 기타가 누워 있던 자리는 텅 비어 잔디 뿐이다 (P.O.V). 덜컹하는 표정의 어린 민형. 혹여나 다른 데에 놓여 있을까 구조물을 끼고 안 쪽으로 가보는 민형. 아파트 외벽 쪽 바로 밑에 뭔가가 떨어져 있다. 가까이서 보니 지훈이 선물로 산 기타 교재 한 권과 지훈의 편지가 포개져 있다. 외벽에 등을 기대고 털썩 주저 앉는 민형. 멍하니 생각에 잠긴다.

INSERT. S#22-1. (P.O.V) (M.O.S) 기타로 실랑이를 하다 빼앗긴 후 자신을 바라보던 지훈의 울먹이는 표정

S#30. 멍하게 정면을 바라보는 민형의 얼굴. 호흡이 조금씩 가빠지더니 열린 울음을 터뜨린다.

INSERT. S#31. (M.O.S) 아지트에 덩그러니 놓인 기타를 보고 우는 지훈의 얼굴. 함께 온 지훈부가 대신 기타를 잡고 지훈의 손을 잡는다. 아빠의 손을 잡은 채 목놓아 울며 걸어가는 지훈의 얼굴.

S#30. 눈물 흘리는 민형의 얼굴. 초라하게 아지트 가운데 쭈그러 앉은 민형의 작은 몸. 한참 운다. 화면이 천천히 어두워진다.

(사운드 선행) 얼마 후 낡은 미닫이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강한 빛이 문이 열리는 모양대로 아지트와 민형을 비춘다. 빛이 들어오는 정면으로 고개를 드는 민형.

S#32. 현재. 민형 자취방 창고 앞. 낮

(P.O.V) 창고 안에서 본 창고 문을 연 민형의 모습. 안쪽으로 손을 뻗는 민형.

창고에 넣어놓은 기타를 꺼내어 먼지를 털다.

S#33. 현재. 민형 자취방. 낮

책상에 기타를 올려 놓고 티슈로 기타를 닦는 민형의 손. 기타줄 밑으로는 기스가 많이 나있다. 기스를 잠시 어루만지고는 기타를 들어 코드를 잡아본다. 조율이 안된 소리가 나자 귀로 음을 들으며 줄감개를 조율하는 민형. 문득 기타 하단에 무언가를 발견한다. 살며시 피식 웃는다.

S#34. 과거. 지훈의 집. 낮

책상 앞에 앉아 무언가 열중하며 쓰는 지훈. 민형이게 줄 편지다.

‘민형아 안녕? 우리가 1학년 때부터 친구였으니까 벌써 친구가 된지 2년이 훌쩍 넘어갔어. 저번 네 생일은 내크리스마스중에 제일 행복했어. 너가 내 친구인게 참 고마워. 그때 선물을 해주고 싶었는데 아빠가 용돈을 미루어서 못했어해줘서 미안해. 그래도 기쁜 소식이 있는데 너한테 기타를 선물로 줘도 된다고 아빠한테 허락 받았어. 물론 지금처럼 계속 같이 연주하면서 놀꺼지만, 너가 집에서도 기타를 조금 더 연습하면 우리 아빠보다도 더 잘 칠 수 있게 될거라고 생각해. 나중에 훌륭한 연주가가 되면, 나한테도 노래 들려줘. 내가 좀 지루해도 늘 같이 있어줘서 고마워!

To. 사랑하는 내 친구 민형이에게

From. 베스트단짝친구 지훈이가

끝 문장을 마치고 잠깐 생각하더니 벌떡 일어나 뒤쪽 거실로 뛰어가는 지훈.

지훈(10) (V.O)

아빠! 이름표 어딴어요?

지훈부 (V.O)

이름표?

지훈(10) (V.O)

그거요. 필통에 붙이는.. 아 여기있다!

다시 책상 앞으로 달려와 앉고는 기타에 무언가를 붙인 후 네임펜으로 무언가 적는다. 그러고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고 또 벌떡 일어나 뒤쪽 거실로 뛰어간다.

지훈(10) (V.O)

아빠! 아빠도 책으로 기타 연습했어?

지훈부 (V.O)

응? 그치. 아빤 책보고 했지.

지훈(10) (V.O)

책보면 금방 칠수 있어요?

지훈부 (V.O)

왜. 민형이 책도 사주게?

S#35. 현재. 민형 자취방. 낮

애뜻하게 벽을 응시하는 민형의 얼굴. 돌아서서 가방과 걸옷을 챙긴다. 벽에 걸려있는 기타 하단에는 네임펜으로 적은 이름표가 붙어있다.

'지훈민형'

이름표에서 카메라가 점점 줌 아웃되고, 외출준비가 끝난 민형이 방을 나선다.

BLACK OUT.

이제 그만 놓아줄까 꿈처럼 설레던 몽상은
장식인척 걸어놨던 양말에 대고 미안해, 안녕

<안녕, 나의 산타(Hi, My Santa)>

타이틀과 함께 스탭, 출연진의 크레딧 IN.

S#36. 과거. 지훈의 집. 낮.

기타 바디 내부에서 사운드홀을 통해 보이는 시점의 장면.

원 모양 사운드홀을 제외한 나머지 검은 여백 위로 엔딩크레딧IN.

영성한 기타 소리가 들린다. 어린 민형의 작은 손가락이 기타 줄을 누르려 애쓰는 듯 하다. 손가락이 아픈지 자꾸 손을 떼어 털다가도 다시 한 줄 씩 자리를 기억해 꼭 눌러본다. 지훈부의 큼직한 손이 민형의 각 손가락을 살포시 눌러주자, 부드러운 G코드의 화음이 들린다. 눈이 동그래져 감탄을 뱉는 지훈과 민형. 지훈은 곁에서 소리가 너무 예쁘다며 호들갑스럽게 떠든다. 지훈부는 다정하게 웃으며 다음 코드를 알려준다. 셋이 모여 앉은 쇼파 너머로 윤빈이 식곤증에 곤히 잠들어 있는 모습이 보인다. 기타소리에 반한 듯 지훈부의 손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민형의 표정도 얼핏 얼핏 보인다. “아빠 이 기타 비싸요?” 하고 연신 물어보는 지훈과 “그럼 비싸지.” 하고 대답하는 지훈부.

KARTS